미얀마 종교성 최고공로상 수상

이정희 붓다자비평화봉사단장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 받아

국제불교지도자協과 활동 전개
우물파기, 학교건립 등에 기여
미얀마 대사, 정부 대신해 감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정희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장이 5월 24일 미얀마 정부로부터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를 수여 받았다.

이정희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장이 5월 24일 미얀마 정부로부터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를 수여 받았다.

매년 사회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사따마 조디까다자' (Saddhamma Jotikadhaja) 작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는 분' 이란 뜻의 팔리어로 미얀마 종교성이 수여하는 작위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미얀마에서는 매년 미얀마를 위해 공헌한 이들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열고 작위를 수여하지만, 이번 작위 수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으로 미얀마대사관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단장은 "티없이 맑고 순수한 미얀마인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특히 불교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고, 신심과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서 한 사람의 불자로서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다"며 "분에 넘치는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미얀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딴진 주한 미얀마 대사는 "이번 작위를 총 12분이 받으시는데, 그 중 재가자는 유일하다. 정부를 대표해서 이번 작위를 받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미얀마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작위를 받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앞으로도 미얀마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등과 함께 미얀마 등지에서 우물 건립과 학교시설 지원 등 자비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08년 서울 청진동에 미얀마문화원이 개원한 이후 문화원 운영 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국내에서는 청정원 등의 협찬을 받아 매년 4차례 소외계층에게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10년간 진행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한 물품액은 총 2억여 원 상당이다. 이밖에 교도소 재소자 교화 지원에도 나서 7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했다.

봉사단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 목탁 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내준 이정희 봉사단장을 비롯한 봉사단에게 감사하다"며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많은 이들이 어려울 때 한국의 도움을 받고,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양국 불교교류의 마중물으로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작위 수여식 후 딴진 주한 미얀마 대사를 비롯해 미얀마 정부에서 파견된 국장단과 이사장 목탁 스님, 이정희 봉사단장 등은 대사관 3층에서 미얀마 전통음식으로 만찬을 가졌다.

이번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는 스님들에게는 '아까 마하 사따마 조디까다자' 라는 '첫 번째의 최고' 라는 수식어가 붙어 수여됐다. 미얀마 종교성에서는 1년 동안 공적 확인 과정을 거쳐 심사위원단인 종교성 국장단의 의견을 종합해 작위 수여 가부를 결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 2013년 지구촌공생회 구호활동으로 태공당 월주 스님이, 2014년에는 미얀마 한국기술학교 건립 등으로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 목탁 스님이 받은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감사"

김제 금산사, 방역 관련 기관에 사찰도시락 지원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4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사투를 벌인 방역관련 기관에 사찰음식 도시락 1000개를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했다.〈사진〉

금산사는 5월 24일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부주지 원혜 스님(김제 흥복사), 금산사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 전주 남고사 주지 석초 스님, 금산사 재무국장 제환 스님, 금산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여찬 스님, 김종열 금산사 종무실장, 이영배 불교회관 사무국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직접 각급 기관을 방문, 사찰음식 도시락 1,000개를 전달했다.

특히 스님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밖에 전북불교회관에서도 사회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사찰음식 도시락이 전달됐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사찰음식 나눔행사는 불교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를 살리는 사찰음식의 기본정신이 널리 퍼져 도시민들의 건강한 생활문화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찰도시락은 사찰음식 전문가이신 장수 영월암 주지 정효 스님이 준비했다. 일곱 가지 잡곡을 넣은 건강밥, 채수 미역냉국, 느타리강정, 두부간장조림, 생땅콩조림, 열무무침, 오이무침, 브로컬리샐러드 등의 식단으로 구성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림선원, 동국대 WISE캠에 1000만원 쾌척

동국대 건학위가 주관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통도사 장유전법도량인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이 동국대 WISE캠퍼스 장학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사진〉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는 5월 23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동림선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김인홍 교무학생처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하며,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해왔다. 또한 장학생은 △템플스테이 △각종 법회 참석 △재능기부 등 해당 사찰과 다양한 스킨십을 통해 해당사찰의 지역불교인재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 40회를 맞이한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동국대 WISE캠퍼스에 재학 중인 경남 김해 지역 출신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은 "동국대 건학위원회에서 마련해주신 좋은 기회로 동림선원이 인재불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장학금 수여식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에 동참하고 동림선원과 학생들과의 인연이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 동국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계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동림선원에서 지역미래불자 육성을 위해 소중한 정재를 희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동국대 WISE캠퍼스는 건학이념의 구현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가수·합창단 어우러진 찬탄의 무대

창원불교, 시민 봉축음악회 개최



창원특례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안, 성주사 주지)는 5월 23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불기 2567년 창원특례시 연등축제 봉축법요식과 시민봉축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시민봉축음악회는 백근곤 MBC경남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에서 우승하며 일약 국민가수로 떠오른 박창근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JK 김동욱',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TOP 4위에 오른 가수이자 국악인 김태연 양이 출연해 감동을 선사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노래에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는 경남리틀싱어즈의 공연과 바리톤 김기환, 소프라노 김보민이 출연한 클래식 공연이 펼쳐졌다.

여기에 불곡사 보리수 합창단, 성주사 가릉빈가 찬불단, 정법사 분다리카 합창단, 구룡사 우담바라 합창단. 봉림사 가루라 합창단, 봉원사 봉원사 합창단, 불지사 사성단 합창단 등 지역 합창단원이 한자리에 모인 창원특례시 연합합창단의 공연히 펼쳐져 불자와 시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물했다.

한편, 부처님께 여섯가지 공양물을 공양하는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봉축법요식은 구룡사 주지 무성 스님의 사회와 성주사 교무 호명 스님의 집전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관불의식, 기원문, 봉축법어, 봉축사, 경축사, 찬탄경문, 발원문 낭독, 축원,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광법사 광우 스님은 "모두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열리고 화합하여 마침내 너와 내가 없는 하나 된 세상을 이루자"며 "보리심을 얻어 부처님의 진실한 도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은 "오늘 우리가 밝힌 자비의 등불은 자기를 낮추는 하심(下心)의 등불"이라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국가적 위난 극복을 위해 우리 불자들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익산불교, 연등축제로 '환희의 장' 열어



익산불교봉축위(위원장 일행, 정각사 주지)는 5월 21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연등축제는 익산문화원 풍물패 길놀이로 시작됐다. 여기에 전북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태봉사 주지)가 영산작법을 시연해 불교문화 진수를 선보였다.

이날 봉축법요식은 전북봉축위 공동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익산불교봉축위원장 일행 스님, 태봉사 주지 영산 스님,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 종회의원 각진 스님, 진각종 심인당 원영 정사를 비롯한 각 종단 스님들과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장석희 전북불교청년회장, 가릉빈가 합창단 등 각급 기관장들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익산불교봉축위원장 일행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모든 생명이 존귀하고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하동 칠불사, 제11회 선차학술발표회

5월 21일, 2023하동 세계茶엑스포 기념 일환



하동 칠불사(주지 도응)가 제11회 선차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5월 21일 칠불사 선다원에서 열린 선차학술대회는 '2023 하동 세계 차 엑스포' 기념행사 일환으로 열렸다.

선차학술대회는 선다원 초의선사 진영의 헌다에 이어 1부 개회식, 2부 학술발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사진〉

학술발표회는 오종근 동신대 교수의 사회로 동국대WISE 불교문화대학원장 혜명 스님의 기조강연, 송정화 동국대 교수의 '침향을 이용한 명상에 관한 연구', '김해 장군차와 운남 보이차의 품질 특성 및 전자 혀를 이용한 맛 분석 고찰' (이혜영 부산대 대학원), '칠불사 선차 문화에 대한 고찰' (이정주 동국대 대학원) 발표로 이어졌다.

또 손병욱 前 경상대 교수의 '흥덕왕 현창, 그 필요성과 방안의 탐구' 를 주제로 초청강연에 이어 '한재 이목의 〈다부〉에 나타난 다도수양에 대한 고찰' (이효정 부산대 대학원), '차 미학 정립을 위한 차 문화공간 분석체계-다산초당을 중심으로' (송연민 동국대 대학원) 발표가 이어졌다. 학술대회는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칠불사는 다성(茶聖)으로 평가받는 초의 선사가 〈다신전〉을 기록한 곳으로 차의 중흥지로 알려져 있다. 매년 산사 등불차회 및 선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차 문화 및 선의 정신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매년 열리는 선차학술발표회를 통해 선차의 학문적 탐구와 선차문화의 이해를 꾀하고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올바른 차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주불교회관, 봉축 장학금 '자비행'



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법요식을 연데 이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주불교회관은 5월 23일 진주불교회관 3층 대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열고 이광윤(진주고3), 박영빈(혜광고3)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또 홍수승 진주불교회관 이사장이 경주 열암곡 마애불세우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밖에 진주불교회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에서 봉사한 구영석 불자(진주비봉로타리클럽)가 바라밀상을 수상했다.

홍수승 이사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은 자비"라며 "하심하여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 건강한 삶을 실천하자. 그것이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이다"고 말했다.

가야불교대학 학장 지현 스님(평안사 주지)은 "진주불교회관 불자들이 더욱더 신심을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자"며 "앞으로 진주불교회관이 단순한 불교회관을 넘어서 진주시민을 위한 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